

# 國內 企業體의 技術情報管理 實施例(1)

## —東亞製藥株式會社에 있어서의 技術情報活動—

姜 健

目 次	
1. 會社의 概要	
2. 技術情報管理部署 設置經緯와 將來의 計劃	
3. 技術情報管理 現況	
3.1 組織 및 活動	
3.2 圖書資料의 入手	
3.3 情報 加工處理 및 蓄積	
4. 成果와 새로운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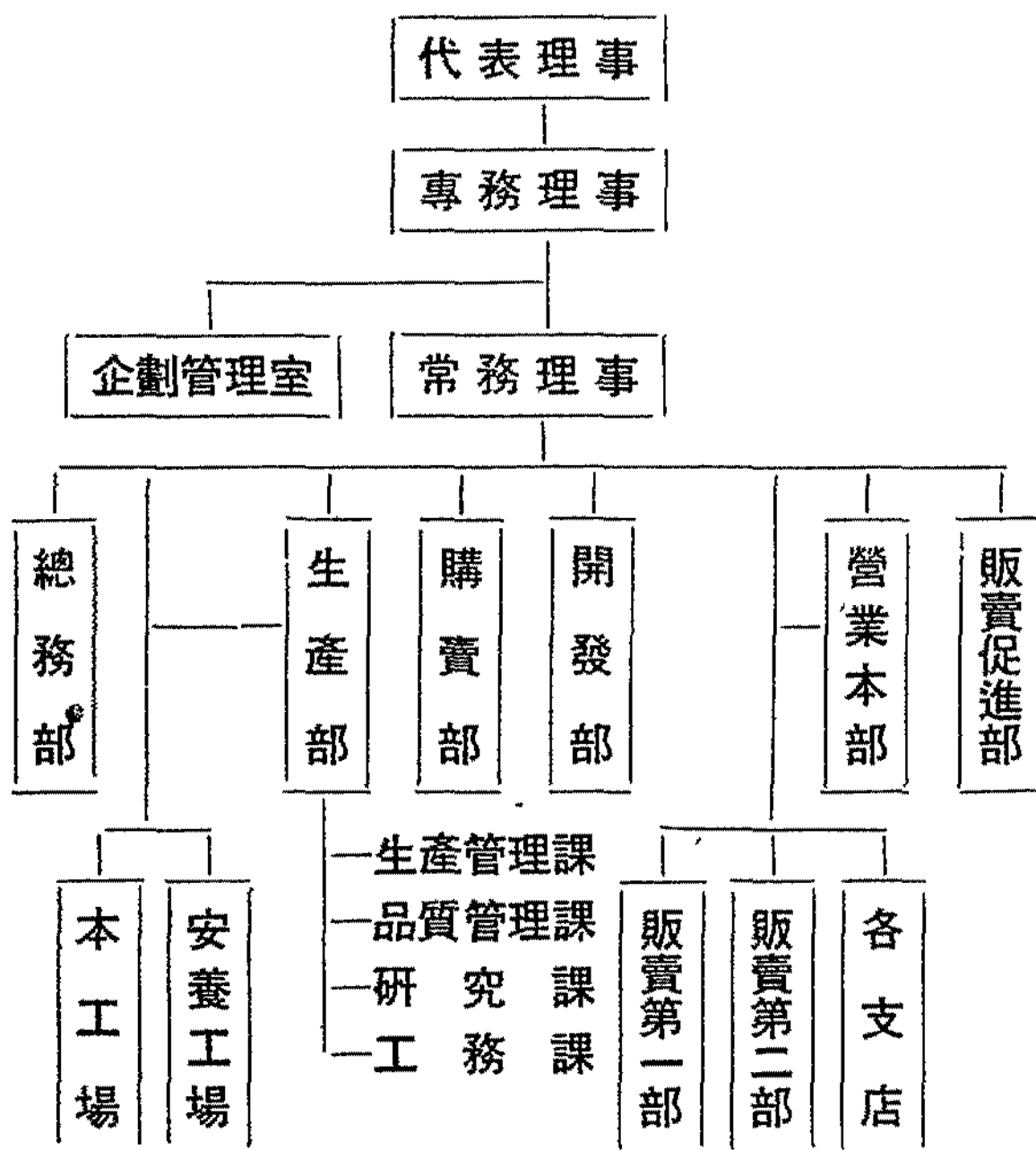
億원으로 增加되는 飛躍的인 企業成長을 이룩하였다. 主要製品으로서는 박카스, 베스타제, 캄파리E, 판피린, 치옥탄S 등 醫藥品과 오란씨 등 食品이 있으며, 美國의 스키부製藥, 日本의 山之內製藥, 大日本製藥, 明治製果, 天野製藥, 藤澤製藥 등과 技術提携하고 있고, 高麗參茶, 高麗參精 등 人參製品을 輸出하고 있다.

그리고 會社의 組織은 대략 <圖 1>과 같다.

### 1. 會社의 概要

當社는 1932년에 創立된 資本金 10億원, 從業員 1,500 名의 製藥會社로서, ① 醫藥品, 農藝藥品 ② 醫療用具, 衛生材料 ③ 食料品, 人參製品 ④ 化粧品, 塗料 및 플라스틱 등의 製造販賣와 輸出入業 및 其他 附帶事業을 事業內容으로 하고 있고, 서울 本社와 本工場 外에 安養工場이 있으며, 68년부터 72년에 걸쳐 5年間에 總資本이 14億원에서 42億원으로, 總賣上額이 27億원에서 77

<圖 1>



\*東亞製藥株式會社 生産部 研究課

### 2. 技術情報管理部署 設置經緯와 將來의 計劃

當社에서 技術情報管理組織의 必要性을 가장 먼저 절실히 느끼고 그 設置를 建議한 部署는 新製品 研究開發 業務를 直接 擔當하고 있는 研究課였다. 研究課는 生産部 所屬으로, 14名의 大學以上 卒業者 (그중 7名이 碩士學位 以上の 學位所持者)로 構成되어 있다. 研究課에서는 우선 먼저 1972年度初에 技術情報管理組織의 必要性 등 에 관한 면밀한 事前檢討를 하였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研究課의 全 研究業務를 分析하여 본 結果, 情報調查業務가 26%, 實驗研究報告業務가 74%로 되어 있고, 그중 半가량이 文獻檢討 등에 充當되고 있어, 結局 研究業務의 60~70%가 技術情報活動에 屬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當社에 所藏되어 있지 않아 外部로부터 入手하고 있는 年間 400~500件에 達하는 文獻을 비롯하여 調査分析된 全 文獻에 대하여 ① 必要한 情報만이 漏落없이 全部 入手되었는지, ② 不必要한 人的, 時間的 浪費가 없었는지, ③ 入手된 文獻이 再利用할 수 있도록 組織的으로 蓄積되어 있는지를 檢討하여 본 結果, 지금까지 實施해 오던 方法의 缺點을 是正하고, 研究開發에 꼭 必要한 資料를 能動的으로 提供하여 줄수 있는 積極的인 技術情報活動組織이 必要하다는 結論을 얻었다.

그러하여 이것을 土臺로 하여 技術情報室 設置의 必要性和 利點을 具體的으로 列擧하여 數次에 걸쳐 上部에 報告하는 同時에, KORSTIC의 支援을 받아 技術情報室 設置에 原則的인 贊成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크게 擴大하여 全社的인 規模 또는 生産部 全

體를 網羅한 規模의 組織으로 하지 않고, 우선 一次的으로 작은 規模로부터 시작하여 段階적으로 擴大 實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72年度 上半期는 準備期間으로 定하여 諸般準備를 하였고, 72年度 下半期에는 研究課內의 技術情報室로서 發足시켜 本格的인 活動을 開始하였다.

1973年度 以後의 計劃은, 73年 上半期에는 研究課內의 技術情報活動을 分析하여 그 結果를 他部署에 印刷 配布하여, 技術情報活動에 관한 認識을 높이고, 73年 下半期에는 生産部 全體를 網羅한 技術情報室로 發展시킬 計劃이며, 74年度에 가서는 보다 擴大하여 學術部署와 企劃管理部署를 總網羅한 全社的인 技術情報室로 發展시킬 計劃이다.

### 3. 技術情報管理 現況

#### 3.1 組織 및 活動

여러가지로 檢討하여 본 結果, 初期의 研究課內의 적은 人員數의 技術情報管理組織으로서는 “委員會組織”이 가장 適合하다는 結論을 얻어, 우선 情報專擔者 1명과 補助員 1명을 情報要員으로 配置하여 技術情報室을 設置하고, 이들의 일을 돕기 위하여 研究課 研究員 多大數로 構成된 “情報分科會”를 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製劑, 食品, 合成 등 各分野의 研究 및 社內 經歷이 豊富한 研究員 3명과 情報專擔者로 構成된 “情報委員會”를 두었다.

“情報委員會”는 入手되는 外國 定期刊行物 및 文獻速報 등에 包含된 有用한 情報의 選擇, 選擇된 情報中 複寫 原文의 必要性 有無의 判斷, 入手된 有効情報의 抄錄 作成 및 蓄積의 必要性 判斷, 購入圖書 및 定期刊行物의 審査(不必要한 圖書 및 定期刊行物의 購入 統制) 및 選定 등을 擔當하고 있고, “情報分科會”는 情報委員會에서 選定된 有効한 文獻의 抄錄作成을 直接擔當하고 있다.

#### 3.2 圖書資料의 入手

當社에서 所藏하고 있는 圖書資料는 다른 製藥會社들 에 比하여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現在 辭典類와 自然系 및 人文系의 書籍을 合하여 約 2,000卷의 單行本을 所藏하고 있고, 日本地域 23種, 歐美地域 18種 등을 合하여 44種의 外國 定期刊行物을 購讀하고 있으며, 73年度에는 約60種으로 增加시킬 計劃이다. 그밖에 KORS TIC의 “文獻目次서어비스”를 利用하여 11種의 Content Sheets를 入手하고 있다.

#### 3.3 情報 加工處理 및 蓄積

情報利用의 便宜를 위한 情報加工處理는 “情報委員會”

에 의한 有効情報의 選擇과 “情報分科會”에 의한 抄錄 作成 作業이 主要內容으로 되어 있고, 情報의 蓄積과 檢索을 위해서는 單純카아드 시스템에 의한 “抄錄 카아드”와 유니텀 카아드 시스템(Uniterm Card System)이 採擇되고 있다.

#### (1) 抄錄 카아드의 作成 및 保管

委員會 組織에 의한 情報管理部署가 發足한 뒤에 最初로 着手한 것은 “情報分科會”에 의한 抄錄作成 作業이었다. 그리하여 우선 10年分 以上이 所藏되어 있는 製藥分野의 重要文獻 2種에 對한 有効情報選擇 및 抄錄作成을 開始하여 約 1,500枚의 抄錄카아드를 作成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KORSTIC의 文獻速報 및 特許速報에 실린 製藥, 食品, 有機化合物 合成 등의 分野의 有用한 記事를 選擇하여 카아드에 轉載하여 두고(最近에는 文獻速報의 分冊이 나오고 있어 이것을 購入하여 가위로 오려서 카아드에 붙이고 있다), “情報委員會”에서 原文入手가 必要하다고 指摘된 文獻은 複寫原文을 入手하여서 抄錄을 作成하고, 이것을 카아드에 追加 記載하여 가고 있다. 카아드의 樣式은 <圖 2>와 같다

<圖 2> 抄錄 카아드

The diagram shows a rectangular card with a header section at the top right containing a circle and a box. Below this is a section labeled 'Key Word' followed by four empty boxes. At the bottom right, the text '東亞製藥研究課' is printed.

그 밖에 當社에서 直接 購讀하고 있는 學術雜誌와 Content Sheets, 其他 當社에서 入手하는 모든 文獻資料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은 抄錄카아드를 作成하여 保管하고 있다. 이와 같이 作成된 抄錄카아드 들은 作成된 順序대로 一連番號를 매기고 原文은 抄錄카아드 番號 順序대로 綴하여 保管하고 있다. 그리고 最近에는 이와는 別途로, 關聯되는 他部署와의 協同으로 國內外的 當社와 關聯된 製品에 관한 카아드를 따로 作成하고 있다.

#### (2) 유니텀 카아드의 作成

유니텀 카아드 시스템은 抄錄된 情報의 迅速하고 效果的인 檢索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다. 유니텀 카아드 시

스팀 實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問題는 Keyword의 選擇이었으며, 檢索用語集(Thesaurus)이 없어 애로가 많았으나, 經驗에 따라 規制되지 않은 自然語의 Keyword를 한 文獻當 4個씩 抽出하여 유니텀 카아드化 하고 있다. 規制되지 않은 自然語의 Keyword의 使用은 信賴性이 적은 不完全한 方法이나, 現段階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며, 앞으로 KORSTIC에서 이런 問題를 早速히 解決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圖 3> 유니텀 카아드

東亞製藥研究課									
0	1	2	3	4	5	6	7	8	9

#### 4. 成果와 새로운 計劃

以上과 같이 活動을 開始한지 아직 半年 남짓한 짧은 期間이지만, 그동안의 實績이라고 한다면, 研究開發에 가장 必須的인 要素인 技術情報를 無計劃的으로 蒐集, 蓄積하던 狀態에서 脫皮하여 技術情報管理 業務를 體系的으로 할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計劃으로서는 技術情報管理部署의 具

體的인 任務로 設定했던 ① 抄錄 카아드 作成, ② 類似 製品 카아드 作成, ③ 유니텀 카아드 作成, ④ 外部 情報機關 利用業務의 統括, ⑤ 調查文獻의 蓄積 保管, ⑥ 重要文獻의 配布, ⑦ 技術情報 調查報告, ⑧ 情報管理 技術教育, ⑨ 圖書室과의 協助 中 特히 重要文獻의 配布를 73年度 上半期의 重點目標로 設定하고 다음과 같은 活動을 開始할 計劃이다.

#### (1) SDI(情報의 選擇提供)서비스

새로 入手된 特定主題에 관한 情報를 選擇하여 該當 分野 研究擔當者에게 繼續的으로 알리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할 計劃이다.

#### (2) 情報周知를 위한 社內報 發刊

入手된 情報를 現在 情報管理組織 속에 屬하지 않은 社內 他部署에도 周知시켜 情報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技術情報에 관한 社內報를 油印物로 作成하여 必要한 部署에 配布할 計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要員 外에 補助員 1名의 增員만 있으면 充分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活動을 通하여 지금까지 除外되었던 다른 部署에서도 점차로 情報活動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活動이 本格化되면 社內 全 部署의 認識이 높아지고, 研究開發, 品質管理, 一般 學術資料에 관한 情報를 統合, 分析할 수 있게 되어, 會社의 方針을 決定하는데 必要한 重要情報를 提供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74年度까지는 社內 各 部署를 總網羅한 全社的인 技術情報室이 發足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p.24의 계속>

ischen Modellierung des Informationssystems Wissenschaft und Technik im VEB Druckmaschinenwerk Planeta. Informatik 16 (1969) 3, p.31.

(13) ibid., p.29.

(14) Ischreyt, H.: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prache und Technik. Düsseldorf: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1966.

(15) Neumann, K.; Riedel, H.: Über die Modallierung von Struktur und Informationsfluss des betrieblichen Informationssystems Wissenschaft und Technik mit Hilfe einer Kreisdarstellung. Informatik 16 (3), pp. 32-36, 1969.

(16) Berul, L.; Sayer: What's wrong with IR? Machine Design, 38 (16), p. 108, 1966.

(17) Frucht, K.: Papers presented at the Seminar "Technische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im Betrieb" of Deutsches Institut für Betriebswirtschaft, September 8, 1965, Frankfurt am Main.

(18) Johannes, D: Das technische Firmenschrifttum, seine Arten, Verwendungsmöglichkeiten und Erwerbung. Dokumentation-Fachbibliothek-Werksbücherei 17 (6), pp. 185-189, 1966.

(19) Berul, L.: Sayer J.: op. cit., p. 107.

(20) Wagner, H.: Das Büchereiwesen an deutschen Ingenieurschulen. Ergebnis einer Umfrage. Düsseldorf: Verein Deutscher Ingenieure 1964.

(21) Stifterverband für die deutsche Wissenschaft (Publ.): Haben wir eine Management-Lücke? Aufzeichnung eines Podiumsgesprächs vom 5. November 1968, in Stuttgart.

(22) N.N: Abstellgleis für Ausrangierte? Der Volkswirt Nr. 47 vom 21. November 1969.

(23) Behrens, D.: Was erwartet die Industrie von der Regierung? Verantwortlichkeit der Regierung in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Naehr. Dok. 21 (2), pp.47-50, 1970.